

2014년 연수안내 003

시작미사 009 유경춘 주교 외 사제단

2014년도 천주교 서울대교구 교구사목교서 017 정성한 신부

2014년도 천주교 서울대교구 교구사목지침 025 정성한 신부

교구사목교서 및 사목지침 연계방안 토의 037

총평 043

법인 사무국 공유사항 047

파견미사 059 정성한 신부 외 사제단

연수안내

교육·홍보팀 교육담당



사회복지법인 Caritas SEOUL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2013년 시설장 및 부장(사무국장) 연수

연수일정표

일자	시간	내 용
11월 7일 (금)	09:00	참가자 접수
	09:00-09:40	시작미사 (유경춘 주교 외 사제단)
	09:40-10:00	쉬는 시간
	10:00-11:30	2015년도 교구 사목교서 및 사목지침 해설
	11:30-12:00	PBC 평화방송 콘텐츠 안내
	12:00-13:00	점심시간 (유스호스텔 레스토랑)
	13:00-15:00	교구 사목교서 및 사목지침 연계방안 토의(1차)
	15:00-15:20	휴식
	15:20-16:30	교구 사목교서 및 사목지침 연계방안 토의(2차)
	16:30-18:00	토의내용 발표 및 의견수렴
	18:00-18:30	총평
	18:30-19:00	식사장소 이동 (인근 식당)
19:00 -	저녁식사 및 아가페	
11월 8일 (토)	07:30-08:30	아침식사 (유스호스텔 레스토랑)
	08:30-09:30	짐정리 및 휴식
	09:30-11:00	법인 사무국 공유사항(5대 해결과제 의견조사 안내 등)
	11:00-11:20	휴식
	11:20-11:30	하반기 신입시설장 및 부장 소개 / 법인 직원 소개
	11:30-12:00	단체사진촬영
	12:00-13:00	점심식사
	13:00-14:00	파견미사 (정성환 신부 외 사제단)
14:00 -	설문지 작성 및 해산	

2014년도 직영·수탁시설 시설장 및 부장(사무국장) 연수 안내

교구의 사목교서와 법인 사목목표에 대한 공유, 공동 과제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을 통해 카리타스의 정체성과 법인과 시설의 공동체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

● 핵심가치

공동선	<p>“개인과 기관, 사회의 공동선을 향한 헌신”</p> <p>시설장과 부장(사무국장)들과 법인이 함께 추구하여야 할 공동선의 가치(인간존엄성 등)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할 수 있도록 교회의 방향을 공유하고, 공동 발전 방안을 모색.</p>
보조성	<p>“개인과 사회, 기관과 기관 사이의 공동선 증대를 위한 도움과 보조.”</p> <p>일정 진행에 있어서 기관이나 개인이 스스로 공동선의 가치를 추구하여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여 개인과 시설에서부터 해법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도움과 보조위주의 진행.</p>
연대성	<p>“공동선의 결핍을 채우기 위한 투신과 협력”</p> <p>법인과 시설의 공동발전을 위해 함께 해결해야 할 부분에 대한 탐색과 공동 사업을 모색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p>
책무성	<p>“사회복지 활동에 대한 교회와 사회로부터의 신뢰성, 투명성, 책임성 획득”</p> <p>법인 사무국의 살림 공개 등을 통해 투명성을 획득하고, 모둠토의 내용에 대한 후속작업을 강화하여 모둠토의의 실효성을 높임.</p>
참여	<p>“모든 사람이 책임을 가지고 공동선을 위하여 의식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의무.”</p> <p>직영·수탁시설 시설장 및 대규모시설 부장(사무국장)이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의무적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함.</p>

객실 사용 안내

1. 하이서울유스호스텔 건물 내에서는 **흡연 및 음주는 금지**되어있습니다.
2. 객실 내 **음식물 및 인화성 물질 반입을 금지**합니다. (배달음식의 반입은 금지하며 필요시에는 **프런트 직원의 승인**을 얻어 1층 식당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투숙객 및 시설 이용객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소란 행위**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객실용 슬리퍼는 객실 밖으로 신고 나오실 수 없습니다.
5. **24:00 이후**에는 안전을 위하여 정문(차도 쪽)이 폐쇄 되오니 **1층 후문(주차장 쪽)**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6. 퇴실 시 비품을 제자리에 두시고,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현관 입구)**에 모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7. **퇴실 시간**은 **8일 10시까지**이므로 짐을 정리하신 후 강당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시작미사

유경춘 티모테오 주교 외 사제단



사회복지법인 Caritas SEOUL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제 1 독서

<우리는 구세주를 고대합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비천한 몸을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 사도 바오로의 필리피서 말씀입니다. 3,17-4,1

형제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다른 이들도 눈여겨보십시오.

내가 이미 여러분에게 자주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데,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끝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자기네 배를 하느님으로,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으며 이 세상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구세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당신께 복종시키실 수도 있는 그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형제 여러분, 나의 기쁨이며 화관인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안에 굳건히 서 있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122(121),1-2,3-4,7-8,4다르-5(◎ 1 참조)

◎ 기뻐하며 주님의 집으로 가리라.

○ “주님의 집에 가자!” 할 때, 나는 몹시 기뻐노라. 예루살렘아, 네 성문에 우리 발이 이미 서 있노라. ◎

○ 예루살렘은 튼튼한 도성, 견고하게 세워졌네. 그리로 지파들이 올라가네. 주님의 지파들이 올라가네. ◎

○ 이스라엘의 법을 따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네. 그곳에 심판의 왕좌, 다윗 집안의 왕좌가 놓여 있네. ◎

복음환호송 1요한 2,5 참조

◎ 알렐루야.

○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다.

◎ 알렐루야.

복음

〈이 세상의 자녀들이 저희끼리 거래하는 데에는 빛의 자녀들보다 영리하다.〉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6,1-8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집사를 두었는데, 이 집사가 자기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말을 듣고, 그를 불러 말하였다.

‘자네 소문이 들리는데 무슨 소린가? 집사 일을 청산하게. 자네는 더 이상 집사 노릇을 할 수 없네.’

그러자 집사는 속으로 말하였다. ‘주인이 내게서 집사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니 어떻게 하지? 땅을 파자니 힘에 부치고 빌어먹자니 창피한 노릇이다. 옳지, 이렇게 하자. 내가 집사 자리에서 밀려나면 사람들이 나를 저희 집으로 맞아들이게 해야지.’

그래서 그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 첫 사람에게 물었다.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소?’

그가 ‘기름 백 항아리요.’ 하자, 집사가 그에게 ‘당신의 빚 문서를 받으시오. 그리고 얼른 앉아 쉼이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당신은 얼마를 빚졌소?’ 하고 물었다. 그가 ‘밀 백 섬이요.’ 하자, 집사가 그에게 ‘당신의 빚 문서를 받아 여든이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주인은 그 불의한 집사를 칭찬하였다. 그가 영리하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사실이 세상의 자녀들이 저희끼리 거래하는 데에는 빛의 자녀들보다 영리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강론 후 잠시 묵상한다.〉

신자들의 기도

-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 ◎ 주님, 저희 기도를 들어주소서.
- 세월호 희생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 연수에 참여한 우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봉헌성가

217 정성 어린 우리 제물

김남수 작사

보통 빠르기로



1. 정 성 어 린 우 리 제 - 물 주 님 앞 에 - 드 리 며 주 계 충 성 다 하 오 - 니 너 그 러 이 -
 2. 몸 과 맘 의 후 대 신 하 - 는 는 자 랑 하 는 - 우 리 들 하 느 님 께 받 은 제 물은 생 - 명 아 인 자 로 이 -
 3. 순 교 자 의 후 손 임 - 을 자 랑 하 는 - 우 리 들 하 느 님 께 받 은 제 물은 생 - 명 다 시 바 쳐 -

받 으 사 우 리 제 물 제 - 대 - 상 에 합 당 하 게 받 - 으 - 소 서
 드 리 니 너 그 러 이 받 - 으 - 소 서 인 신 비 롭 게 받 - 으 - 소 서 미 약 하 온 이 제 물

정 성 어 린 - 이 제 물

영성체송 시편 84(83),4-5 참조

주님, 당신 제단 곁에 참새도 집을 짓고, 제비도 둥지를 틀어 거기에 새끼를 치나이다. 만군의 주님, 저의 임금님, 저의 하느님! 행복하옵니다, 당신 집에 사는 이들! 그들은 영원토록 당신을 찬양하리이다.

성체성가

168 오묘하온 성체

슬로바키아 성가



1. 오묘하온 성체 - 앞 에 찬 미 흠 승 드 리 세 떡 과 술 의 형 - 상 - 안 - 에 어 면
 2. 예수 수난 전 날 - 밤 에 이 성 사 를 세 우 고 리 세 영 혼 기 - 르 - 시 - 려 주 신
 3.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받아 먹 고 마 시 라 세 말 까 지 나 - 의 - 기 - 억 이 성
 4. 예수 말 씀 아 니 - 시 면 우 리 어 쯤 알 리 요 예 말 씀 아 - 니 - 시 - 면 누 가



이 감 취 신 고
 거 록 한 성 체
 사 로 행 하 라
 감 히 영 하 리
 하 느 님 의 아 들 - 예 수 구 세 주 의 몸 이 라

파견성가

200 열렬하신 주의 사랑

Trad. Melody, 이문근 편곡

Moderato
mp



1. 열렬하신 주의 사랑 내 맘을 사-르네 기록하오리니 주의 사랑 성-심찬
2. 구원하신 주 사랑 해아신 줄을 사-르네 피와 불로써 주의 사랑 받-심찬
3. 이 땅이 사랑 하 여 당 신 을 주-시 며 오리와 불로써 주의 사랑 받-심찬

mf *cresc.*



미-찬송하세 영원한무궁세 에그 마음받-들-어 창-검에 찢린
님-의자녀라 리-를 구했네

decresc. *cresc.* *allarg.*



상 처그 크신 사랑을 온-천하만백성 아찬 미할지어-다

2015년도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목교서

정성환 프란치스코 신부



사회복지법인 Caritas SEOUL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2015년도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목교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복음화” - 기도는 새로운 복음화의 활력-

‘사도들과 신자들은 모두 한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

(사도 1,14 참조)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4년은 우리 국민 전체가 큰 아픔과 슬픔을 겪었던 한 해였습니다. 성모님처럼 “영혼이 칼에 꿰질리는”(루카 2,35) 극심한 고통을 당한 분들 앞에서 우리는 어떤 위로의 말도 찾기 어려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느님께서 지난 8월에 방한한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위로와 격려의 손길을 건네주셨습니다.

또한 하느님께서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의 시복을 통해 순교자의 씨앗으로 성장한 우리 한국 천주교회가 나아갈 길을 알려 주셨습니다. 순교자들은 곤경과 박해 속에서도 한결같이 하느님께 희망을 두고 서로 돕고 격려하며 살았습니다.

이러한 신앙 선조들의 삶을 이어받아 우리도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에게 좀 더 위로와 격려의 손길을 내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 말씀이 더욱 힘차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것입니다.

우리 교구는 지난 2014년 한 해 동안 ‘하느님의 말씀은 새로운 복음화의 원동력’이라는 확신으로 성경을 읽고, 쓰고, 묵상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사목 목표 실현을 위해 사목 현장 곳곳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사제, 수도자, 신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가오는 2015년에는 하느님의 말씀으로 시작되고 일깨워진 신앙이 더욱 성장하도록 기도 생활에 전념합시다.

“기도는 하느님을 향하여 마음을 들어 높이는 것이며, 하느님께 은혜를 청하는 것입니다.”¹⁾ 이런 기도 생활의 모범이요 스승은 바로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자주 외딴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마르 1,35; 루카 5,16 참조). 공생활을 시작하며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후에 기도하셨고(루카 3,21 참조),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는 더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열두 사도를 뽑기 전에 산으로 가시어 밤새워 기도하셨고(루카 6,12 참조), 수난을 앞두고 겓세마니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셨으며(루카 22,41-44 참조), 십자어는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루카 23,34.46 참조). 이렇게 기도는 예수님 삶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분은 기도로써 성부와와의 일치 안에 머무르셨고, 기도의 힘으로 성부의 뜻을 실천하셨습니다.

기도의 스승이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친히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분은 가장 완전한 기도인 ‘주님의 기도’(루카 11,2-4)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에서 우선 하느님께 합당한 찬미와 영광을 드려야 한다는 것, 그다음에 험난한 세상에서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바를 간청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루카 18,1),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마르 14,38)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든 하느님께 자녀다운 신뢰심을 지니고 꾸준히 기도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과거 우리 순교자들은 사제를 만나 성사의 혜택을 받을 기회가 매우 적었습니다. 하지만 아침기도, 저녁기도, 묵주기도 등을 충실하게 바치면서 살았고, 거기서 힘을 얻어 선교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다가 기쁘게 하느님을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우

1) 다마스쿠스의 성 요한, 「신앙 해설」, 68:『가톨릭교회교리서』2590항.

리 역시 기도 생활에 충실할 때 신앙인답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 하루 생활 중에 기도하는 시간을 반드시 마련하여 매일, 꾸준히, 규칙적으로 기도합시다. 기도는 인간의 성화(聖化)와 세상의 복음화에 필수적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구원될 수 없습니다.²⁾

사제와 수도자들은 기도의 모범이며 스승이신 예수님을 닮아 스스로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무일도를 성실하게 바치도록 합시다. 또한 사제들은 신자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교회 정신에 따라 지속적인 기도 생활을 하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날마다 아침기도와 저녁기도, 식사 전후의 기도, 성무일도를 바치고, 주일에는 미사를 중심으로 기도로써 거룩하게 지내며, 또한 전례주년과 그에 따르는 대축일을 경건하게 지내도록 권고합니다.³⁾ 많은 고민과 부담을 안고 사는 오늘날의 신앙인들이 날마다 기도 안에서 주님과 가까이 지낸다면, 복음의 기쁨을 누리면서 교회와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또한 가족이 함께 기도하도록 노력합시다. 가족이 정기적으로 모여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한다면, 가족 간의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어 예수님의 성가정을 닮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기도를 배우고 익히도록 모범과 가르침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가정을 “가정 교회”라고 부르면서, 가정에서 부모들이 “말과 모범으로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첫 스승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합니다.⁴⁾ 기도는 가정 성화와 복음화의 지름길입니다.

우리는 나와 내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교회와 세상, 무엇보다도 가난과 고통 속에 신음하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와 국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갖가지 갈등과 분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70년 가까이 지속되어 온 남북의 분단과 반목을 비롯하여 나라 안에서

2) “기도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구원을 받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김없이 영벌을 자청할 것입니다.”(성 알폰소 마리아 데 리구오리, 『기도의 위대한 힘』, 제1편 제1장, 32면:『가톨릭교회교리서』2744항.)

3) 가톨릭교회교리서』2698항 참조.

4) 『교회헌장』11항.

도 지역 갈등, 노사 대립, 보수와 진보의 분쟁 등으로 서로의 가슴에 많은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언어를 쓰는 하나의 민족 공동체입니다. 우리 민족이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한마음, 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부터 노력합시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지난 8월 18일 명동 성당에서 거행된 ‘평화와 화해를 위한 미사’에서 화해, 일치, 평화라는 하느님의 은혜는 우리 각자의 회심(回心)과 분리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상에서 모든 이를 위해 자신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생각이 다른 이들을 적대시하지 않고 이해와 관용으로 대하려 할 때, 대립과 배척이 아니라 대화와 포용을 추구할 때 하느님께서서는 화해와 일치, 평화라는 선물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를 위해 우리 자신부터 변화하도록 평화의 주님께 간절히 은총을 청하고, 평화의 수호자이신 성모님께 자주 묵주기도를 바치면서 전구를 청합시다.

2015년 한 해 동안 우리 교구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에 전념하며 살아간다면 자기 자신은 물론 가정, 교회와 세상의 참된 복음화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복음화가 불가능하다는 교황님의 말씀을 명심하기로 합시다. “성체 조배를 하고 기도 안에서 말씀과 만나고 주님과 성실한 대화를 나누는 데에 더 많은 시간을 쏟지 않으면, 우리의 활동은 쉽게 무의미해지고, 우리는 노고에 지치고 열정도 사그라지고 맙니다.”⁵⁾ 우리 교구의 모든 사제, 수도자, 신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를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을 누리며 복음 선포와 이웃 사랑의 길로 정진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5)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권고, 『복음의 기쁨』, 한국천주교주교회의, 2014년, 262항.

한국 천주교회의 주보이신 성모 마리아와 성 요셉,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한국의 모든 순교 성인들과 복자들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2014년 11월 30일 대림 첫 주일에

추기경 추경

천주교 서울대교구 교구장
추기경 염수정 안드레아

2015년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목지침

정성환 프란치스코 신부

 사회복지법인 Caritas SEOUL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2015년도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목지침

하느님과의 대화인 기도를 통해 새로운 복음화를 실현하기 위한 아래의 교구 지침을 본당과 지구, 수도회 및 각 교회기관의 실정에 맞게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당〉

1. 아침기도, 저녁기도, 식사 전후기도, 묵주기도 등 매일 꾸준히 지속적으로 기도합시다.
2. 가정은 ‘가정교회’입니다. 가족이 정기적으로 함께 모여 기도하도록 노력합시다.
(가정을 위한 기도, 부모를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 부부의 기도 등)
3. 젊은이들이 기도에 맞들일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오. 젊은이들이 단체 활동(레지오, 성서모임, 기도모임 등)을 통해서 하느님의 말씀과 기도 안에서 기쁨과 위안, 희망을 얻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4. 우리나라의 평화와 화해, 일치를 위해 꾸준히 기도를 바칩시다.

〈일반교육〉

“기도는 하느님을 알고 나를 아는 길입니다.”

1. 일상 기도를 충실히 합니다.
2. 사목국에서 발행한 「말씀과 기도」책자를 성심껏 활용합니다.
3. 기도 체험을 마음에 새기고 다른 이들과 나눕니다.

<선교전례사목>

1. 교황님의 방문으로 가톨릭 신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성당을 찾는 이들이 새로운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선교운동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예비신자들이 참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십시오. 또한 이를 위해 필요한 교리 봉사자들의 양성과 교육에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교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소공동체와 함께하는 예비신자 교리서 ‘함께하는 여정’ 봉사자 양성 교육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3. 세례 후에 신자가 온전히 신앙 공동체와 하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으로 교육하여 주시고, 쉬는 교우들이 돌아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찾고 실행하여 주십시오.
4. 전례 안에서 기도를 통해 신앙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이에 필요한 전례교육을 실시하여 주십시오.

<가정사목>

1. ‘기도는 새로운 복음화의 활력’이기에 가급적 매일,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가정기도의 날을 정하여 가정기도(아침기도, 저녁기도, 묵주기도 및 가톨릭 기도서의 주요 기도)와 전례에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기도를 통해 화해와 일치를 이루고, 가정 공동체와 그 구성원들이 필요로 하는 은총을 청하며, 서로를 축복해 줄 수 있는 가정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2. 매일 미사 혹은 그 주일의 독서와 복음 중에서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 가정을 위해 들려주시는 말씀을 찾아 묵상하고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 그 말씀에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가정교회를 이루도록 노력하여 주십시오.
3. 기도로 자라난 신앙을 열매 맺기 위해 사랑의 실천에 힘써 주십시오. 각 가정의

환경과 조건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세워 이 사회의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돕는 빛과 소금의 가정이 되어 주십시오.

4. 가정의 성화를 위해 ‘말씀 안에 성가정’ 프로그램을 본당에 파견하여 실시하오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리상담가로 구성된 성가정 상담팀이 강의, 상담, 가족과의 성경 통독을 통해 심리적 성찰과 더불어 각 가정에 필요한 성경 말씀을 찾아 ‘성경 가훈’을 정하도록 돕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노인사목〉

1. 노인 신자들을 위한 쉽고 친근한 일상 기도방법을 제시하고 보급할 예정이오니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노인 신자들의 신앙교육과 영성생활을 지도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가톨릭시니어 아카데미 교재 『주님과 함께』를 발간하고 있사오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노인 신자들을 위한 특성화 피정프로그램으로 ‘외딴 곳’ 피정(1박2일, 용문 및 양지 청소년수련장)과 선교사들이 이끄는 ‘참사랑’ 피정(1일, 본당방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와 홍보를 바랍니다.
4. 건강상 이유로 본당 교리반에 나올 수 없는 어르신 예비자들을 찾아가는 ‘방문 교리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본당 방문 교리교사 양성 아카데미’ 교육을 실시하고 있사오니, 방문 교리교사를 할 수 있는 봉사자를 선발하여 교육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의 삶을 지향하며 미래의 실질적인 봉사자를 양성하기 위해 가톨릭 영 시니어 아카데미 (55~67세 대상, 2년 과정)를 운영하고 있사오니 유능한 인재를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6. 글을 모르는 노인신자들을 위해 문해교육을 실시하는 시메온 학교 를 설립하여 본당·지구단위로 확산 보급하고 이를 위한 봉사자를 양성하는데 많은 협조 바랍니다.

7. 각 본당 노인사목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다양한 강의를 진행할 수 있는 전문 강사진을 보유한 <강사뱅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각 본당 시니어아카데미 교사의 질적 향상을 위해 <초급·중급과정> 교사양성교육 및 <월례교육>을 진행하고 있사오니 많은 참여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9. 현재 운영되고 있는 13개 가톨릭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를 통하여 지역 사회 안에서 노인들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사목적 배려와 선교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홍보를 바랍니다.

〈성서사목〉

1. ‘기도의 해’를 맞이하여 하느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도록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당이나 지구차원에서 성서교육의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성서교육이 본당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각 사도직 단체들 간에 마찰이나 갈등 없이 협력하여 교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각 본당에는 성서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한 교우들이 많습니다. 이들이 공부만 하는 차원을 넘어서 복음 선포와 실천으로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사목〉

1. 평신도사도직 (사립)단체는 기도를 늘 생활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단체 회합 및 모임 뿐 아니라 회원 개개인이 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도록, 특히 가정이 중심이 되어 기도하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단체의 친교와 고유 카리스마를 지켜감과 동시에 교구, 본당, 타 단체와의 교류와 친교를 통해 보다 넓은 안목으로 사회 복음화를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직 인준 받지 못한 단체는 교구 평신도 (사립)단체 인준심사위원회를 통하여 교구장님의 인준을 받을 수 있도록 단체사무부를 통해 인준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인준 받은 단체는 평협에 가입하여 교구 내 단체 간의 긴밀한 유대를 맺고 서로 협력하여 친교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직장사목〉

기도생활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직장인들의 신앙생활을 위해 직장사목부에서는 다음의 실천사항을 권고하고 노력합니다.

1. 교우들이 직장생활 안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기도(아침·저녁기도, 일을 시작하며·마치고 바치는 기도, 식사 전·후 기도)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십시오.
각자의 직장이 삶의 터전인 직장인들이 사무실에서도 성경을 가까이해 두고 자주 읽을 수 있도록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2. 기도가 필요한 교우를 위해서 직장교우회 공동체가 한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3. 교우회 미사 때 각 교우들로 하여금 고백성사 및 미사 준비를 성실히 하기를 바랍니다.
4. 교우회 모임 시 성경읽기와 나눔 및 '가톨릭 직장인' 월보를 통한 나눔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직장인 교우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5. 연 2회 진행되는 피정과 성지순례 및 신앙대회와 문화영성 아카데미와 같은 직장사목부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여 직장생활의 의미 있는 쉼터를 찾고 활용하기를 바랍니다.
6. 격년으로 진행되는 세례성사와 견진성사를 위한 교리에 많은 예비자들과 교우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기를 부탁드립니다.
7. 직장사목부 봉사자들을 위한 워크숍과 교육에 봉사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를 바랍니다.

〈청소년·청년사목〉

‘기도는 새로운 복음화의 활력’에 초점을 둔 2015년, 교구 청소년·청년 사목 분야와 각 지역, 지구, 본당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부지침에 따라 협조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1. 각 지역, 지구, 본당의 사목자들께서는 “혼인성사의 은총과 의무를 지닌 그리스도인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세례로 받은 신앙에 따라 어려서부터 하느님을 알고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제2차 바티칸공의회 가르침(그리스도인의 교육선언 3항)에 따라 청소년기의 신앙교육의 첫 번째 교육자인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신앙교육의 의무를 마음에 새겨 가정 안에서부터 충실한 기도 생활을 통해 하느님을 알고 이웃을 사랑하는 신앙의 기본을 가르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2. 지역, 지구, 본당은 청소년들이 성경 말씀에 기초한 신앙교육과 기도를 바탕으로 한 신앙생활에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청소년들이 성경 말씀읽기, 성경 쓰기 및 지속적인 기도 등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에 맞들이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를 부탁드립니다.
3. 본당을 비롯한 교회의 시설에서는 청소년들이 마음 편히 쉴 수 있고,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허락해 주십시오.
4. 다양한 환경과 계층의 청소년들의 신앙교육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인 청소년 사목 협조자와 봉사자들의 양성에 관심을 갖고, 지원에 힘써주십시오.

〈사회사목〉

“기도는 예수님 삶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분은 기도로써 성부와와의 일치 안에 머무르셨고, 기도의 힘으로 성부의 뜻을 실천하셨습니다.” (2015년 사목교서)

예수님은 기도에서 힘을 길어내어 아픈 이들과 가난한 이를 돌보는 바쁜 일상을 견디셨습니다. 기도 중에 “오늘날 새롭게 등장한 형태의 빈곤과 취약함을 살펴보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안에서 고통 받는 그리스도를 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기쁨, 210항)

1. 본당 사회사목분과는 시혜적인 이웃돕기를 넘어 지구 또는 지역차원에서 지역사회와 연대할 수 있는 사회사목분과로 발전하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2. 지구 사회사목 담당신부님들께서는 지구 내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소속 시설들과 연대해 가톨릭사회복지 네트워크를 구성해 기도와 사랑의 봉사실천과 전문성이 어우러지는 사회사목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하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기도로 주님과 일치하여 주님의 뜻을 실천하고, 사회교리를 실천의 원리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성인교육 담당신부님들께서는 가능하다면 구역장, 반장, 총회장 연수와 피정 때 「복음의 기쁨」을 주제로 해주시고, 교육 시 사회교리에 대한 소개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4. 본당에서는 가능한 한 일정한 시간에 이 사회에서 고통 받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한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마련해 그들과의 영적 연대를 이루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국〉

1. ‘기도는 새로운 복음화의 활력’이라는 주제에 따라 서울주보에 서울대교구 성지순

례길을 따라 성지를 소개하고, 시복된 순교자들과 모든 신앙 선조들의 모범을 따르도록 안내합니다. 또한 성인들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매주 묵상하며 기도 생활에 충실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2. 교회와 세상을 위한 교황님과 교구장님의 동정에 기도로 동반해 주시고, 매달 새롭게 소개되는 각 본당의 감동적인 신앙 이야기와 재미있는 공동체 소식을 서울주보를 통해 널리 알림으로써 본당 공동체의 복음화에 활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3. 교구 소식을 전하는 교계 언론(평화방송 평화신문, 가톨릭신문 등)에 관심을 갖고 교회 소식을 알고자 노력합시다. 또한 일반 언론을 통해 교회와 세상, 우리나라와 국민을 위해 신앙적인 모범과 필요한 기도가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연대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교구 내 문화사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인 모임과 활동을 장려하고 새로운 미디어를 활용한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진행하는데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앙을 바탕으로 한 문화의 복음화를 이루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개인 성화와 공동체적 기도의 중요성을 의식하면서, 특별히 젊은이들이 기도에 맞들이고 거기에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매달 진행되는 ‘헬로우 기도’와 말씀으로 기도하며 기도를 배우는 ‘홀로함께 렉시오디비나’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위원회〉

생명위원회는 2015년 우리 교구의 사목방침 ‘기도는 새로운 복음화의 활력’에 따라 사목교서 세부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1. 각 본당에서는 생명분과위원들이 활발한 활동을 하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인간생명을 존중하고 수호하기 위한 생명분과활동’을 2015년 본당 사목방침에 반드시 반영하여 주십시오. 또한 본당 각 분과 및 단체도 「생명분과」와 함께 생명활동에 참여하도록 독려해 주십시오. 아직 「생명분과」가 설치되지 않은

본당에서는 반드시 「생명분과」를 설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각 본당에서는 교구에서 시행하는 생명 교육과 행사에 본당 신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시오. 또한 본당생명분과위원들을 위해 마련한 양성 교육 프로그램과 본당생명교사를 활용한 예비자 교리 등 '작은 규모의 단체를 위한 생명교육'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신부님들께서는 여러 기회의 생명강론을 통해 '생명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을 교우들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당 내 생명교육 : 사순, 대림 특강, 견진성사준비교육, 생명강론, 노인대학 특강, 본당 청년 대상 특강 등
 - 본당생명분과 연수(연 2회 이상) 및 생명세미나 참석
 - 본당생명교사양성교육 및 요한 바오로회 운영
 - 생명교사를 통한 생명교육 : 예비자교리, 레지오마리아е 훈화, 자모회교육, 교사회교육 등
 - 자연출산조절(NFP) 교육
 - 본당 사제, 수도자들을 위한 생명연수 참여
3. 각 본당에서는 우리 교구의 2015년 사목방침에 따라 교우들이 피땀 흘리며 성부께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닮아 생명의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위해 생명을 위한 기도를 각 가정과 본당에서 봉헌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십시오. 이와 함께 생명수호를 위한 미사와 전례, 행사 등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명을 위한 미사 봉헌
 - 가정과 본당 차원의 생명을 위한 기도 봉헌 운동 : 생명을 잉태한 가정과 병자들을 위한 기도 봉헌 운동
 - 전례 및 행사 : 임신부 축복미사, 생명대행진 참여 등
4. 각 본당에서는 교우들이 생명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을 삶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격려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신혼부부와 임신부 등 출산을 준비 중인 신자들이 제대혈(탯줄혈액) 기증운동에 동참하는 것과 노인교우들과 임종에 가깝거나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교우들이 적극적인 영적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가정간호와

호스피스 돌봄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구 사목교서 및 사목지침
연계방안 토의

법인사무국



사회복지법인 Caritas SEOUL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2015년 서울대학교 사목교서 및 사목지침

연계방안 토의

총평

정성환 프란치스코 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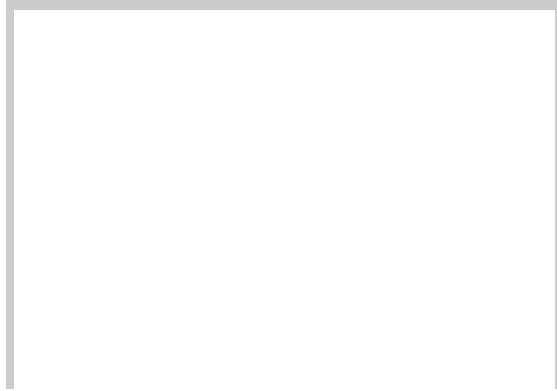


사회복지법인 Caritas SEOUL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연계방안 토의

총평



법인 사무국 공유사항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각 담당



사회복지법인 Caritas SEOUL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공유사항

5대 해결과제 해결방안 탐색을 위한 의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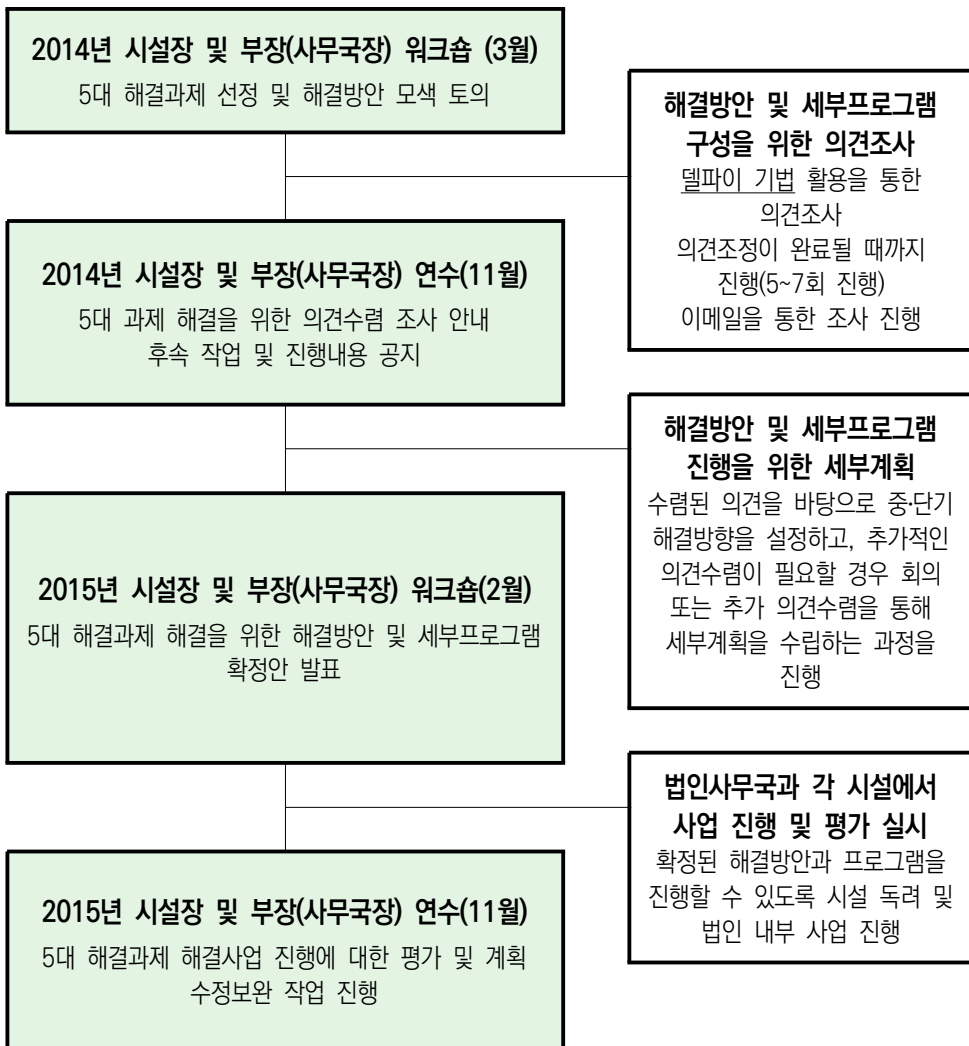
- 지난 2014년 3월에 진행되었던 시설장 및 부장(사무국장) 워크숍을 통해 아래와 같이 5대 해결과제를 선정하였음.

2차 5대 해결과제(2014-2016)	
1	정체성 확립
2	의사소통 구조 마련
3	영성프로그램
4	법인전입금 기준 정비
5	협의회역의 역할강화

-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해결방안과 세부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수립을 위해 TFT를 구성하여 진행하고자 계획을 하였음.
- 5대 해결과제 해결방안마련에 있어 시설장 및 부장, 사무국장 **모두의 의견을 듣고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하여 5대 해결과제에 대한 후속작업 방식을 변경하여 진행하고 있음.
- 지난 워크숍 모둠토의를 통해 진행되었던 내용들을 정리하여 **의견 수렴을 위한 질문지**를 만들어 개인별로 이메일을 발송하여 **회신하는 방식(텔파이 기법)**으로 의견을 취합하였으나 **회신율이 매우 저조**하여 계획된 일정대로 진행하지 못하였음.

- 바쁜 일정 속에서 모든 분들의 의견 취합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무작위 샘플링을 통해 응답 대상자를 선정하고 진행하는 부분으로 방향을 수정함. 단, 적극적으로 추가 의견 개진 요구가 있으신 시설장님, 부장(사무국장)님들의 참여로 보장됨.
- 따라서 의견조사 및 의견수렴을 위해 5~7회 정도의 조사가 진행될 예정임.

- 5대 해결과제 진행을 위한 의견조사 사업추진도(2014년~2015년) -



2015년도 등록단체 지원사업 안내

1. 사업개요

가. 지원 대상 : 등록단체, 협의회, 종사자

나. 지원 분야 : 프로그램(지원사업, 교육사업) 기능보강(시설·장비 보강)

분 야		자 격	사업내용	신청한도
프 로 그 램	지원사업	등록단체	·시설의 대상자들의 삶의질 향상과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5백만원
	교육사업 협의회	등록단체	·종사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5백만원
기 능 보 강	시설·장비 보강	등록단체	·시급한 시설보수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필수 장비 구입	5백만원

다. 사업 기간 : 2015. 1. 1 ~ 2015. 12. 31 (12개월)

라. 서류제출기간 : 2014. 11. 24(월) ~ 11. 28(금) <28일 17:00 도착분에 한함>

마. 신청방법

- 1) 설명회자료, 홈페이지(일반자료실)상의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 2) 접 수 : 우편접수, 방문접수(마감일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팩스 또는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음

3) 제출서류

- (1) 지원신청 공문(기관양식) 1부.
- (2) 지원신청서, 사업요약서, 사업세부계획서. 각 3부.
- (3) 시설인가증(또는 고유번호증) 각 3부.

4) 주 소(수취인)

서울시 중구 명동길 80 가톨릭회관 4층 418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사회복지팀
지원사업 담당자 앞 / 우편번호 100-809

바. 심 사

- 1) 심사기준 : 사업의 필요성, 긴급성, 사업수행능력
- 2) 심사과정 : 기본심사, 서류심사, 면접심사, 현장심사(면접심사와 현장심사는 필요시)

단계	세부내용
기본심사	- 지원사업 업무 담당자가 수행 - 응모 단체(개인)의 자격여부 심사, 신청분야의 적절성 등
서류심사	- 전문가 심사 - 각 심사자별로 심사기준에 의한 심사 진행, 평가자들의 점수를 평균화하여 순위 확정
계수조정	- 총지원사업의 예산규모와 평가자들의 평가결과, 지원액 조정 의견을 고려하여 지원 우선순위 결정
결과공고	- 최종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본 회 홈페이지와 해당기관에 대한 개별 공문을 통해 선정결과 통보 (집행지침 하달)

사. 결과발표 : 2014. 12. 12(금)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 예정

아. 사업보고 : 2016년 1월 30일(금) 17:00까지

우편접수(서류)와 이메일(caritasseoul@hanmail.net)접수(파일)

마. 문의: ☎ 727-2245 사회복지팀 이영주

2.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등록단체 지원사업 설명회 안내

- 1) 일 시 : 2014. 11. 10(월) 14:00~16:00
- 2) 장 소 : 가톨릭회관 1층 강당

시 간	일 정	담 당
14:00 - 14:30	접 수	
14:30 - 14:40	부회장신부님 인사말	
14:40 - 14:50	2015년 등록단체 지원사업 일정안내	이영주(사회복지팀)
14:50 - 15:50	지원서 작성 방법 안내	이권보 과장(사회복지팀)
15:50 - 16:00	질의응답	

등록단체 연말보고 및 사업계획 제출

1. 요청시기 : 2015년 1월 중
2. 보고내용
 - 1) 연말보고 및 사업보고 : 2014년 1월~12월
 - 2) 사업계획 및 예산 : 2015년도
3. 작성방법
 - 1) 자원봉사 통합네트워크시스템(www.esvc.or.kr/vtn/register)
등록요원 홈페이지 접속
 - 2) 입력방법
 - ① 각 기관별 부여받은 아이디로 접속
(아이디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진행되는 등록요원 교육을 이수하면 발생됨)
 - ② 메뉴에서 **등록단체** 클릭 → **[등록단체 정보 수정]** 클릭
 - ③ 화면 중간 **녹색 바탕** 각 영역 확인참조 (6개 영역)
 - ④ **일반정보** 와 **상세정보** 는 기존 입력된 내용 확인 및 필요시 수정 요망
 - ⑤ **사업보고** / **사업계획** / **예결산** / **교구형보고** 입력요망
4. 문의사항 :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사회복지팀 이영주 ☎ 02-727-2245

강일1지구 노유자시설 신축공사 현황보고

▣ 공사개요

구 분	내 용		
사업대상지	서울시 강동구 강일동697(강일1지구 사회복지시설용지3)		
대지면적	2,543.87㎡ (769.51평)		
용 도	사회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 사제 부모님 요양시설 + 부속 경당		
건축규모	지하2층 / 지상5층		
동별개요	사회복지시설	부속 경당	합 계
면 적	5,146.50㎡(1,557평)	4,059.30㎡(1,228평)	9,205.79㎡ (2,785평)
비 율	55%	45%	100%
주 요 실	숙소(2인실) - 34실(68명) 데이케어센터 - 20인	부속경당 및 다목적실	-
공 사 비	124억 (100%)		



▣ 추진현황

추진현황	2009년 7월	SH공사로부터 매입
	2011년 10월 -2013년 4월	분회와 서울대교구 상호간 강일동노유자시설건립관련 수시 모임 개최 건축설계 및 심의 완료
	2013년 06월 07일	건축허가 완료
	2014년 01월 17일	토목공사 업체 선정 (주)청안건설
	2014년 02월 21일	본공사 업체 선정 (주) 삼성홈이앤씨
	2014년 04월 06일	기공식 및 기공미사 (집전 - 조규만 총대리주교님, 유경춘주교님외)
	2014년 03월 13일	본공사 업체와 공사계약체결
	2014년 04월 30일	감리계약체결 (감리업체명 : 서울대교구 가톨릭건축사사무소)
	2014년 05월 14일	건축공사 착공
	2014년 10월 현재	전체공정율 29%, 기초구간(지하1, 2층) 철근콘크리트 타설 등
	2015년 09월 13일	준 공(예정) (16개월 소요)

하반기 직영·수탁시설 순환보직 명단

1. 직영수탁시설장 순환보직

연번	성명	순환보직내용		발령일	비고
		전임지	현임지		
1	Fr.이상렬	유락종합사회복지관장	신당종합사회복지관장	7월 1일	
2	Fr.김경하	신당종합사회복지관장	서초한우리정보문화센터	"	
3	정선희	동작종합사회복지관장	유락종합사회복지관장	"	
4	김광수	법인사무국 사회복지팀 담당관	성동노인종합복지관장	"	승진
5	노명래	법인사무국 자원개발팀 담당관	동작종합사회복지관장	"	승진
6	이승화	다산어린이집 원감	다산어린이집 원장	9월 1일	승진

2. 법인사무국 및 산하 시설(실무책임자) 순환보직 등

연번	성명	순환보직내용		발령일	비고
		전임지	현임지		
1	최은영	서초여성회관 부장	법인사무국 사회복지팀 담당관 (본당, 종합복지)	7월 1일	
2	김종민	-	법인사무국 교육홍보팀 담당관	"	채용
3	신혜선	법인사무국 교육홍보팀장	서초여성회관 과장	"	
4	김상미	성동노인종합복지관 과장	법인사무국 자원개발팀 담당 (후원 및 후원자관리)	8월 1일	

3. 법인사무국 및 산하 시설(직원) 순환보직 등

연번	성명	순환보직내용		발령일	비고
		전임지	현임지		
1	이광선	법인사무국 재무행정팀 (회계 담당)	상계종합사회복지관 과장	8월 1일	
2	박선미	법인사무국 카리타스자원봉사센터	성동노인종합복지관 과장	"	
3	정경애	상계종합사회복지관 과장	법인사무국 재무행정팀 (회계 담당)	"	
4	홍희정	성동노인종합복지관	법인사무국 카리타스자원봉사센터	"	

파견미사

정성환 신부 외 사제단



사회복지법인 Caritas SEOUL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제 1 독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 사도 바오로의 필리피서 말씀입니다. 4,10-19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나를 생각해 주는 마음을 마침내 다시 한 번 보여 주었기에,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합니다. 사실 여러분은 줄곧 나를 생각해 주었지만 그것을 보여 줄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어떠한 처지에서도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넉넉하거나 모자라거나, 그 어떠한 경우에도 잘 지내는 비결을 알고 있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겪는 환난에 여러분이 동참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필리피 신자 여러분, 복음 선포를 시작할 무렵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여러분 외에는 나와 주고받는 관계에 있는 교회가 하나도 없었음을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내가 테살로니카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은 두어 번 필요한 것을 보내 주었습니다.

물론 내가 선물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이익이 돌아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받아 넉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에파프로디토스 편에 보낸 것을 받아 풍족합니다. 그것은 향기로운 예물이며 하느님 마음에 드는 훌륭한 제물입니다.

나의 하느님께서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스럽게 베푸시는 당신의 그 풍요로움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회답송 시편 112(111), 1나ㄷ-2.5-6.8ㄱ과 9(㉠ 1나)

◎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이!**

○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고, 그분 계명을 큰 즐거움으로 삼는 이! 그의 후손은 땅에서 융성하고, 올곧은 세대는 복을 받으리라. ◎

○ 잘되리라, 후하게 꾸어 주고, 자기 일을 바르게 처리하는 이! 그는 언제나 흔들리지 않으리니, 영원히 의인으로 기억되리라. ◎

○ 그 마음 굳세어 두려워하지 않네. 가난한 이에게 넉넉히 나누어 주니, 그의 의로움은 길이 이어지고, 그의 뿔은 영광 속에 높이 들리리라. ◎

복음환호송 2코린 8,9 참조

◎ **알렐루야.**

○ 예수 그리스도는 부유하시면서도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어, 우리도 그 가난으로 부유해지게 하셨네.

◎ **알렐루야.**

복음

〈너희가 불의한 재물을 다루는 데에 성실하지 못하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6,9ㄴ-15**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들을 만들어라. 그래서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거처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아주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은 큰일에도 성실하고, 아주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일에도 불의하다.

그러니 너희가 불의한 재물을 다루는 데에 성실하지 못하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또 너희가 남의 것을 다루는 데에 성실하지 못하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의 뿔을 내주겠느냐?

어떠한 중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쪽은 미워하고 다른 쪽은 사랑하며, 한쪽

은 떠받들고 다른 쪽은 업신여기게 된다.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돈을 좋아하는 바리사이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비웃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너희 마음을 아신다. 사실 사람들에게 높이 평가되는 것이 하느님 앞에서는 혐오스러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강론 후 잠시 묵상한다.〉

신자들의 기도

- 새로운 시대,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 ◎ 주님, 저희 기도를 들어주소서.
-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연수를 마치고 파견되는 우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봉헌성가

221 받아주소서

김영자 작곡, 성 이냐시오 기도

뜻을 마음에서기며

1. 주여 나를 온전히 받아주소서 주여 나를 온전히 받아주소서
 2. 주여 나를 온전히 받아주소서 주여 나를 온전히 받아주소서

서 나의 모든 자유와 나의 기억과 지력 나의 의지 소유 한 이 처
 서 내 게 주 신 모든 것 주 의 것 이 오 니 오 직 주 님 뜻 대 로 이 처

모든 것을 주여 당사량은 총을 나에게 주시면
 리 하 소 서 당 신 사 량 은 총 을 나 에 게 주 시 면 아

무든 것 되 - 들 려 드 리 오 리 다
 무 것 도 더 - 들 바 람 없 으 오 리 다

영성체송 시편 17(16),6

하느님, 당신이 응답해 주시니, 제가 당신께 부르짖나이다. 귀 기울여 제 말씀 들어 주소서.

성체성가

164 떡과 술의 형상에

J.S. Bach

1. 떡과 술의 형상에 예수 임하시며 크신 영광 떠나서 우리 게오나
 2. 주의 축복 받으려 모인 주의 백성 주께 영광이 떠드리며 우 감사하나
 3. 인류 구원 위하여 수난하신 주여 만백성이 주님을 찬미하나

시네 예수여 이제 대삼 예수 의 - 성 체 성 혈 사 랑 하나 이 다
 이 다 예수여 그 말씀가 예수 의 - 가 체 르 치 성 사 랑 하나 이 다
 이 다 예수여 십자가 예수 의 - 가 신 길 을 사 랑 하나 이 다

파견성가

436 주 날개 밀

L. D. Sankey



1. 주 날개 밀 내 가 편 히 쉬 리 라 어 두 운 이 밤 에 바 람 부 나 아 버 지 깨 서 날
 2. 주 날개 밀 내 의 피 난 처 되 니 거 기 서 쉬 기 를 다 바 람 하 노 라 슬 픔 서 세 상 은 의
 3. 주 날개 밀 항 상 즐 겨 움 있 네 생 전 에 걱 정 다 끝 나 도 록 거 기 서 주 님 의



지 켜 주 시 니 겁 내 지 않 고 잘 쉬 리 로 다 주 날개 밀 즐 겁 도 다
 위 로 못 하 나 거 기 서 안 위 와 을 언 으 리 라
 들 보 심 받 고 평 안 히 쉬 임 을 언 으 리 라



그 사 랑 곁 을 자 뉘 노 주 날개 밀 쉬 는 내 영 혼 영 원 히 살 게 되



리 라